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붙이고 다녔던 세계성체대회 스티커를 기억하세요?



시간이 흐르고 낡아진 스티커는 빛이 바랬지만 성체성사의 뜻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한마음한몸운동’ 정신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올해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설립 25주년**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세상속에 사랑을 전하는 빛이 되겠습니다.

故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신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이제 25살의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청년에게 꿈이 있듯이 25살이 된 본부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청년과 같은 열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성체성사의 정신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개인, 가정, 본당, 지역 공동체를 바탕으로 사회전반,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차원으로 한마음한몸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세상의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현존해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 세상에 하느님의 충만한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본부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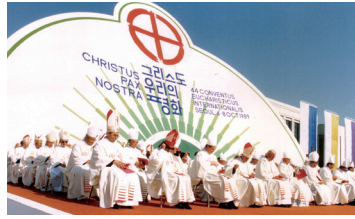
“**항상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 함께 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에
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정 성 환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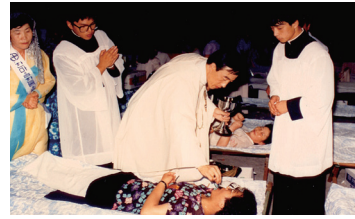
한마음한몸운동 25년, 사랑실



1989년 한마음한몸운동 추진 결의 대회
이 대회를 통해 한마음한몸운동 정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자발적인 헌신약속이 이루어졌다.



1989년 서울세계성체대회 장엄미사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주례하에 108개국에서 온 200여명의 주교단 및 2,000여명의 사제단, 65만여명의 국내외 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체성사의 신비를 생활속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미사가 거행되었다.



1989년 사랑의 헌혈대잔치 약 20,000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하여 강우일 주교를 비롯한 4,900여명의 신자들이 헌혈에 동참했고, 국내 헌혈 운동 역사에 남는 획기적인 행사였고, 현재까지 124,000여명이 헌혈운동에 동참했다.



1991년 창조질서 보전 및 완성을 위한 공청회 이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부의 활동과 제로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 도농 직거래 운동등을 시작하여 2000년 환경사무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독립되었다.



1998년 한마음한몸운동 10주년 준비기념 학술 심포지엄 개최 한마음한몸운동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과제를 찾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03년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 시작 헌미 헌금운동의 일환으로 하루에 100원, 한달에 3,000원씩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는 운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52,700여명의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2004년 국제단기봉사단 '따뜻누리' 1기 파견 몽골 울란바타르 사랑의 학교에 국제단기봉사단을 파견하기 시작하여, 현재 16기 총 323명의 봉사단을 몽골, 캄보디아, 네팔등지에 파견하고 있다.



2004년 치료비 지원사업 시작 많은 환자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을 막고자 장기이식 대기자와 백혈병,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총 16억 8천만원 규모의 치료비를 지원하였다.



2009년 사랑나눔 장기기증 명동 거리 캠페인 89년 헌안운동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122,000여명의 장기기증희망자를 모집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를 하였다.



2011년 한국국제협력단 유공기관 감사패 수상 2002년 한국국제협력단에 NGO 등록단체로 가입한 후 적극적으로 모범적인 해외원조활동을 실시하고, 정부, 기업, 국내외의 시민사회단체등과 연대하는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



2011년 자살예방센터 명동거리 캠페인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자살문제에 대해 교회를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펼치기 위해 2010년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고, 캠페인과 교육,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2년 500번째 생애 첫 기부 가족 탄생 지난 2008년 손주의 돌 반지를 기부해 주신 한 할머니의 나눔 실천이 씨앗이 되어 시작한 '생애 첫 기부' 운동 참여자가 점점 증가하여 500번째 기부자 가족이 탄생하였다.

‘한마음한몸’운동은 성체성사의 깊은 뜻을 실제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생활로써 실천하려는 운동입니다. 생명운동과 나눔실천의 본산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설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1988년 제44차 세계성체대회(1989.10.04 ~ 08)를 준비하면서 한국 고유의 성체신심운동으로써 설립된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지난 25년간 전세계 곳곳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해외 485개 사업 222억원 지원(북한 및 인도적 지원 포함), 국내 737개 사업 106여억원을 지원(생명·환경·도시민민·사회복지시설사업 등) 하며 성체성사의 근본정신인 나눔과 섬김, 그리고 생명문화를 전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헌안·장기기증, 조혈모세포기증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차 없던 시절부터 생명나눔운동에 대한 씨앗을 뿌려왔고, 낙태방지과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성가정입양원, 환경사무위원회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생명위원회 등도 모두 본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가톨릭장기기증전국네트워크,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찾아 전개해 나가며, 성체성사의 근본정신인 사랑과 나눔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함께해주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신자·후원자 여러분이 함께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천 25년

한마음한몸운동 25년은 주님의 생명, 사랑, 평화, 기쁨 안에서 성체성사의 정신으로 한 몸이 되어 사랑을 실천한 25년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첫 마음으로 세상 속에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1993년 입양결연운동을 통한 '성가정입양원' 사회복지회 이관 1989년 '우리아이 우리손으로'라는 슬로건아래 한마음한몸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입양결연운동이 보다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로 이관되었다.

1993년 한미헌금 스티커를 붙이고 계신故 김수환 추기경 한미헌금의 정신을 신자들의 일상생활 안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에 붙이는 한미헌금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1995년 골수기증운동시작 가톨릭의과대학과 함께 골수(조혈모세포)기증운동을 시작하여 33,400여명의 기증희망자를 모집하고, 이들중 260여명이 실제 환자들을 위해 기증해 생명을 살렸다.

1997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독립 1995년부터 북한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진행하다 보다 전문적인 대북 지원을 위해 97년 민족화해위원회를 독립시켰다.



2005년 서울대교구 성체대회 개최 성체성사의 정신을 기리는 성체대회를 서울대교구에서 05년과 06년 개최하여 한마음한몸운동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2005년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진 인도적 지원 90년 필리핀, 이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자금을 지원하였고, 이후 인도네시아, 아이티, 파키스탄 등 25개 국가에 51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환아들을 위한 '산타가 되어주세요' 행사 시작 백혈병 및 난치병으로 성탄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병실에 누워있는 친구들을 위해 캠페인을 시작하여 매년 1,800여 환우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2007년 캄보디아 프레이벵 지역마을 아이들 90년 5개국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50여개국에 총 100여억원을 지원하여 가난한 이웃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3년 나눔가게·나눔기업 중소기업의 가게 및 기업들이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새롭게 시작하여 현재 60호점이 탄생하였고, 200여 곳의 예비 나눔가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013년 창립 25주년 기념미사 창립 25주년을 맞아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후원자, 신자분들과 공동체를 위한 감사미사를 봉헌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걸어온 25년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인도적지원, 지구시민교육, 애드보커시 & 캠페인을 통해 지구촌 빈곤국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비지원 장기이식대기자 및 백혈병·희귀난치병 환우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들을 위해 진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운동 장기기증 인식개선을 위한 생명나눔교육·캠페인 전개 및 정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기증운동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운동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헌혈운동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위해 헌혈운동과 헌혈증 기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교육 및 캠페인 전개, 상담·유가족 자조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헌금운동 매 끼니때마다 '한 줌의 쌀'을 이웃들과 예수님 뒤편으로 봉헌하여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자 했던 우리 교회의 나눔운동입니다.



하루100원 모으기운동 하루 100원, 한달 3,000원. 주머니속 작은 동전하나가 누군가에게겐 희망이 됩니다.



생애 첫 기부 소중한 아이의 첫 생일잔치 대신 그 비용을 국·내외의 빈곤한 아이들과 아픈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입니다.



나눔가게, 나눔기업 중소기업의 가게 및 기업들이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캠페인입니다.

함께하는 사회사목

한국가톨릭 레드리본

HIV/AIDS 편견깨기! 에이즈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동성애자, 성소속의 여성, 남성들만이 에이즈의 감염 원인은 아닙니다. 부부간의 성행위, 모자감염, 수혈 등도 에이즈의 감염원이 되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성행위를 통해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안전한 성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염될 수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난과 낙인은 HIV/AIDS 감염인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 작은 실천과 지식이 HIV/AIDS 감염인들의 삶에 향상 될 수 있습니다.

한국가톨릭레드리본 02)753-2037,8
www.redribbon.kr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기쁨과희망은행 5주년 기념 미사 및 심포지엄
출소자 및 피해자 가족의 자립을 위한 부담보대출은행으로 대출 및 자본금 지원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설계해 나가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2008년 6월 25일 창립하게 된 은행이 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미사와 심포지엄이 진행됩니다.

5주년 기념 미사

- 일 시 6월 23일(주일) 오전 11:00
- 장 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센터 지하 성당

5주년 심포지엄

- 일 시 6월 25일(화) 오후 2:00
- 장 소 명동 코스트홀

월레미사에 초대합니다. 수용자, 사형수, 출소자 및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후원회원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미사입니다.

- 일 시 7월 1일(월) 오전 10:20
- 장 소 가톨릭회관 3층

“해밀”가족 모임 안내

범죄로 인해서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함께 합니다.

- 문 의 02)921-5093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자원봉사 기본교육 안내

- 대 상 자원봉사 교육 희망자(사전신청 필수)
- 일 시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10:00~13:00
- 장 소 명동 가톨릭회관 426-1호
- 교육비 5천원
- 문 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02)727-223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제 15차 자원봉사자 교육

- 일 시 6월 22일(토) 10:00~15:00
- 장 소 가톨릭회관 205-2호
- 참가비 1만원
- 내 용 강의(자원봉사자 사명과 영성, 장애인영역 자원봉사의 실제), 미사

- 접 수 6월 19일(수)까지
- 문 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02)727-2235, www.esvc.or.kr

환경사목위원회

제1회 가톨릭 에코 북 콘서트

- 일 시 6월 28일(금) 오후 7:00
- 장 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산다미아노
- 대 상 청년 및 관심 있는 모든 이들
- 내 용 주제선정도서: ‘우주속으로 걷다’
- ① 우주 이야기 관련 영상 관람
- ② ‘우주 속으로 걷다’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 자리 (이재돈 신부, 김재환 교수)
- ③ 성밴드와 함께하는 음악 자리



facebook. 한마음한몸운동본부
www.facebook.com/oboscorea
다양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장기기증 서약하기

www.obos3042.or.kr
참여문의 1599-생명살이(3042)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개인상담 신청 및 문의
02-318-3079
사이버 상담 www.3079.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2013. 1 ~ 5)

가게의 규모와 종류는 다르지만 행복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만은 똑같은 나눔가게·기업 신청시 예쁘게 디자인된 현판과 전용 저금통,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카운터 및 입구에 나눔현판을 부착하시면 나눔의 의미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기업이 되시려면 소정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 37호점 서울 방화동 스피드메이트 방화점
- 38호점 대구 지효동 아슬심리치료센터
- 39호점 서울 도림동 레인보우 통신
- 40호점 서울 광화동 다오아파트점
- 41호점 서울 시흥동 로사나네
- 42호점 서울 시흥동 우리피부비교기
- 43호점 서울 안국동 투스플레시 안국점

- 44호점 서울 중곡4동 호프나라
- 46호점 부산 초량3동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 47호점 충남 당진읍 상아치과
- 48호점 서울 중계동 우리마음심리상담소
- 49호점 서울 광진구 하중 삼성상점
- 50호점 서울 중로5가 송월타운 대성대리점
- 51호점 서울 서초동 2-10길 홈플러스점

- 53호점 부산 수영동 시은사
- 54호점 부산 수영동 (주) 타비스 에너자임
- 55호점 경북 구미 황상동 맥박기타노
- 56호점 경북 울진 북면 부리리 원자로 식당
- 57호점 서울 구로동 옥상위의 고양이
- 58호점 서울 도화동 하늘공방공
- 59호점 대구 신암5동 숯과 황토

- 60호점 서울 반포동 로이주소
- 61호점 인천 연수1동 취죽천국
- 62호점 서울 노원동 올리비아 웨딩
- 63호점 서울 행운동 경희부부한의원
- 64호점 서울 구로동 카페플로린
- 65호점 서울 상월곡동 땀구멍
- 66호점 인천 마전동 원 인테리어

※ 현재 약 200여 예비 나눔가게·기업이 후원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참여문의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727.2299

▲ 52,765 명

(2013년 6월 3일 현재)

- 자등이체신청 02)774-3488
- ARS 060-700-1117
- 인터넷참여 http://www.obos.or.kr
- 후원계좌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지로 7522277
- 우리는행 454-005324-13-001 신한은행 140-001-982286 국민은행 083-01-0309-453
- 능 협 386-01-015833 외환은행 061-22-03709-4 하나은행 850-910006-091104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생애 첫 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의 기증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아프리카·아시아의 빈곤한 친구들과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941번째 박희제 안토니오 아기 가족

- 정지훈 (2013.01.24호) 정민서/매 이삼은, 30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김자원 (2012.06.13호) 김태우/매 이수민, 50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박주하 (2013.02.06호) 박대순/매 정보미, 50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이은재 투가 (2012.04.10호) 이은혜/매 박찬선, 25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정시울 (2012.05.09호) 정진우/매 류영주, 100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이선민 (2012.06.29호) 이주영/매 원지선, 50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윤지수 그라시아 (2012.05.22호) 윤영진/매 전혜수, 100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박희제 안토니오 (2012.05.03호) 박재현/매 정희정, 50만원(자궁출생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오현민 (2012.03.27호) 오정훈/매 이세정, 50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심한희 (2013.02.02호) 심재현/매 나은성, 10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원준호 토마스아퀴나스 (2013.01.28호) 원성철/매 문현정, 10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김보경 (2012.06.26호) 김동현/매 신은희, 30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박효주 글라라 (2012.04.12호) 박기용/매 이다, 50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표민준 안셀모 (2012.04.10호) 표경수/매 정혜정, 30만원(자궁출생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최지호 유제니아 (2012.08.10호) 최승준/매 송하연, 50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이주원 (2012.06.06호) 이창선/매 이자영, 100만원(자궁출생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송지호 (2012.07.08호) 송창민/매 정광래, 100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문지현 유스티노 (2012.06.19호) 문정현/매 김수현, 50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윤예주 요안나 (2011.12.23호) 윤병규/매 박형숙, 30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이서윤 예바 (2010.05.24호) 이종희/매 오수정, 25만원(자궁출생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이규하 아람 (2012.05.30호) 이영희/매 오수정, 25만원(자궁출생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이희준 (2012.05.28호) 이형재/매 최신아, 100만원(자궁출생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박서현 (2012.07.28호) 박홍서/매 송승은, 20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김민정 마리아 (2003.05.28호) 김남경/매 심양지, 15만원(자궁출생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김현우 유스티노 (2008.06.13호) 김광선/매 김선영, 57만원(자궁출생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김나을 마리스텔라 (2012.05.23호) 김동진/매 황수현, 30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신효원 예반젤리아 (2012.06.05호) 신상문/매 문희정, 100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이아을 보나 (2012.05.29호) 이강현/매 최진선, 100만원(자궁출생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송태민 요셉 (2009.03.27호) 송준석/매 오운정, 15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정승윤 (2012.04.22호) 정석진/매 최민지, 365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이한결 리노 (2012.05.29호) 이은혜/매 김윤경, 365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생애 첫 기부자 목록
- 정수아 (2011.04.29호) 정대훈/매 김은선, 10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신서준 요셉 (2011.06.02호) 신민석/매 조수현, 365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권나을 데레사 (2011.12.15호) 권광호/매 김선영, 50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신기창 (2011.12.03호) 신훈성/매 김윤지, 100만원(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등기)

• 생애첫기부 참여신청 및 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02.727.2267 • 생애첫기부 계좌안내 우리 454-005324-13-044 예금주(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